발간자료

• **퀀트:** 직전 11월 추세이탈급 강도 급감 이후 이번달 RISK-OFF 시그널로 변곡점 형성. 내년 미국의 마이너스 실질금리 환경은 자산시장과 실물경기간의 괴리가 더 확대되는 K자 형태의 디커플링 지속을 의미. 이러한 환경은 증시 내 IT를 필두로 한 경기민감주들의 아웃퍼폼을 야기.
(계량분석 김경훈)

• **금융 연간전망:** 금융업종 간 투자의견은 증권 > 은행 > 보험 순을 유지. 구조적 여건상 증권업종에 아직 유리하다고 판단. 거래대금 증가 전망 유지와 증권업종으로의 머니무브 가능성. 성장 스토리의 연장 가능. 다만, 희석 여부에 따라 높은 주주환원수익률이 기대되는 은행주의 확인된 매력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될 개연성도 염두.
(금융 김지원)

• **레저 (Overweight):** 롯데관광개발: 드랍액 고성장 지속되고 있으며 2026년 중국-제주 직항 노선 확대 시 모객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기회가 있다고 판단. 레저 산업 Top-Pick 유지. 파라다이스와 GKL도 순매출액의 호조로 금일 주가는 나쁘지 않겠으나 드랍액은 명확한 성장 추세라고 보기 어려움. 추세 지켜볼 필요.
(인터넷/게임/레저 김혜영)

• **글로벌텍스프리_Not Rated:** 12/2일 기재부 예산안 발표 내용에서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일몰 연장 관련 내용 제외. 2025.11월 태국 국세청에 환급창구 운영사업자 사전 입찰 서류 제출 등 해외 사업 확대를 통한 매출 회복 기대. 한일령 및 무비자에 따른 매출 증가로 기업 가치 회복 기대.
(의료기기/화장품 박종현)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·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.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본 자료는 '나눔스퀘어'와 '아리따 글꼴'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

투자등급 비율

BUY : 89.4%	HOLD : 10.6%	SELL : 0.0%

투자등급 관련사항

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
· BUY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 이상
· HOLD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5% 이상~ +15% 미만.
· SELL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5% 미만.

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
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,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
· Ov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· Neutral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· Und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
주)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